

반역정권을 불태울 드세찬 증오의 불길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에 아부굴 종하여 매국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보수집권 세력의 사대 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민중을 무시하는 리명관(정권)은 퇴진하라!』, 『한미자 유무역협정체결 무효시키라.』...

증오의 함성을 부르짖으며 분노의 초불을 들고 투쟁의 거리에 나선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정권을 단호히 심판하고야말 결사의 의지가 차넘 치고있다.

각계각층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초불시위투쟁이 날로 더욱 확대되는 속에 지난 11월 30일에 남조선 도처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모여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무효, 『한나라당해체』를 위한 대규

보초불집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만도 주운 날씨에도 수만명의 각계층 시민이 모여와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지었다.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초불집회와 시위투쟁은 일신의 안일과 부귀를 위해 민족의 리익마저 서슴없이 팔아먹는 매국적인 보수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의 폭발이다.

알려진 것처럼 현 당국자는 『경제

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겠다.』느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느니 하며 권력의 자리에 태고았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와 생존권보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외세를 위한 정치, 1% 가진자들을 위한 사대매국정치, 반인적정치만을 꿰었다.

남조선당국이 집권초기에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해 소고기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인민들의

존엄을 해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한것은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이번에 보수집권세력이 각계의 항의와 반대에 불구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한것은 바로 그 반인적정책의 연장이다.

남조선당국은 『재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상전의 강도적인 요구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 『자유무역협정』을 더욱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매국협정으로 만들어버렸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통틀어 미국에 가장 유리한 협정』이라고 놀란한것은 그것이 얼마나 굽육적인 협정인가 하는것을 어설히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국익』이니 뛰어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

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었다.

현실은 보수집권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진보와 개혁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지킬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반대를 위한 투쟁의 화살을 단순히 생존권사수가 아니라 반역정책을 끝장내기 위한대로 지향시키고있다.

이에 국도의 불안을 느낀 보수집권세력은 『불법』이니, 『폭력』이니 하며 과열의 위기를 보면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멀망에 달은 자들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추켜든 분노의 초불을 반역정권타도를 위한 항의의 불길로 더욱 확대시켜 보수집권세력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현『정권』은 굴욕협정을 통해 제 무덤을 파고 있다

남조선 각지에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을 결사반대하는 투쟁이 련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8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가 벌어졌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아당인 사람, 로동자, 동민, 종교인,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 수천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이 날치기처리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미국의 일방적리익만을 반영한 독소조항들로 일관되

여다고 비난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을 비롯한 협상관련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집권자가 비준동의안을 날치기처리하게 한 장본인, 원흉이라고 단죄하였다. 현『정권』은 굴욕협정체결을 통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하면서 집권자가 책임이후에도 력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 편할 날이 없을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과 경찰당국이 그 무슨 『경찰서장폭행사건』에 대해 오만스레 떠들어대고 있다.

내용인즉 지난 11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초불집회장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확인도 안된 사진자료를 보수언론에 흘러보내여 대대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이에 대해 『경강대웅』이 아니 뛰어 독을 쓰고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다.

특히 여론들은 사실을 입은 경찰서장이 집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경찰복을 갈아입은것과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서장이 그 즉시 기자회견을 가진 사실, 또 『전치 3주』(상처를 완전히 치료하는데 3주일이 걸리는 부상)를 입었다는 그가 다음 날 경찰서에 출근하여 사무를 보았다는 점, 얼굴에 명

이 든 자리를 찾아볼수 없다는 사실을 렬거하면서 사건이 경찰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은 『한국에서 사건전후의 박진찬 종로경찰서장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것은 경찰당국

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한나라당) 해체, 『정권』 퇴진』 구호를 높이 들고 매일과 같이 투쟁에 빌쳐나서고 있으며 특히 현 당국자가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보수집권세력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목을 조이는 이러한 사태발전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이번 모략극을 꾸미고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니 뛰어난 무순한 일이나 날것처럼 복잡소동을 피우고있는것이다.

특히 보수당국은 이를 구실로 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을 『폭력행위』로 몰아야 압수적으로 탄압할 흥게를로 풀어놓고 있다.

현 집권자와 국무총리,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속

에서 물대포를 쏘아대며 초불시위투쟁을 강경진압한 저들의 살인적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죄표현도 없이 도리어 제전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느니,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독을 쓰고있는 사실이 이를 립증해주고 있다.

지금 아당을 비롯한 각계는 이번의 사건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초불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상기』라고 주장하면서 초불투쟁을 굽힐수 없이 빌려나갈 의지를 펴리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보수집권세력을 배척하였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제아무리 『불법』이니 하며 교활한 험술과 파쇼폭압에 미쳐날뛰어도 인민들은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며 대규모적인 초불투쟁으로 매국노들을 심판할것이다.

최동운

이 폭압사용을 위한 명분상기』라고 깊혔다.

한미로 사건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초불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탄압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모략극을 꾸미고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니 뛰어난 무순한 일이나 날것처럼 복잡소동을 피우고있는것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굴욕적인 정의로운 애국투쟁을 『폭력행위』로 몰아야 압수적으로 탄압할 흥게를로 풀어놓고 있다.

현 집권자와 국무총리,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속

무엇을 위한 어로구역 확장 놀음인가

얼마전 남조선보수당국이 백령도어민들의 어업활동구역을 북쪽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백령도 서쪽의 44km² 어장면적을 13km² 더 확장하여 북위38° 선까지 57km²로 늘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저들이 취한 어업활동구역확장이 백령도어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느니, 이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줄것 이라느니 뛰어들고 있다.

얼핏 보면 그들이 마지막에 여려차례 일어난것은 이

를 어설히 실증해준다.

더우기 지난해 11월 남조선호전세력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평도에서 북의 행위에 수천발의 포탄을 런사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는 파국상태에 몰아놓고 이 지역정세를 최악으로 바싹 몰아야 한다.

지난 11월 23일에도 내외호전세력들은 연평도에 전쟁도를 비롯한 서해수역일대에서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각군종, 병종이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광란

으로 벌리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날이 갈수록 정세가 첨예화되면서 민간위민을 전혀 그렇지 않게 벌여지는 대결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기

물고 『친서민정책』을 곧잘 떠는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백령도어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이 마땅하다.

결국 그들이 운운하는 『소득』과 『숙원사업』은 『친서민정책』을 선전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

를 여실히 실증해준다.

거량의 『소득』이며 무력으로 어로구역을 치기 위한 『숙원』이다.

평화로운 바다에서 마음편히 고기를 잡아보려는 민간인들을 내세워 공화국의 신성한 령도를 도적고양이마냥 야금야금 침범하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침략적, 도발적범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보수당국이 어떻게 하나 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수당국은 오산하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제아무리 화려한 보자기로 저들의 대결정책을 감싸려 하지만 거기에 귀기울일 사람은 하나도 없다.

『친서민정책』을 곧잘 떠는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백령도어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이 마땅하다.

결국 그들이 운운하는 『소득』과 『숙원사업』은 『친서민정책』을 선전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

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거량의 『소득』이며 무력으로 어로구역을 치기 위한 『숙원』이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기

물고 『친서민정책』을 곧잘 떠는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백령도어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이 마땅하다.

결국 그들이 운운하는 『소득』과 『숙원사업』은 『친서민정책』을 선전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

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거량의 『소득』이며 무력으로 어로구역을 치기 위한 『숙원』이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기

물고 『친서민정책』을 곧잘 떠는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백령도어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이 마땅하다.

결국 그들이 운운하는 『소득』과 『숙원사업』은 『친서민정책』을 선전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

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거량의 『소득』이며 무력으로 어로구역을 치기 위한 『숙원』이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기

물고 『친서민정책』을 곧잘 떠는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백령도어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이 마땅하다.

결국 그들이 운운하는 『소득』과 『숙원사업』은 『친서민정책』을 선전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

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거량의 『소득』이며 무력으로 어로구역을 치기 위한 『숙원』이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기

물고 『친서민정책』을 곧잘 떠는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백령도어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이 마땅하다.

결국 그들이 운운하는 『소득』과 『숙원사업』은 『친서민정책』을 선전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일

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거량의 『소득』이며 무력으로 어로구역을 치기 위한 『숙원』이다.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기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너무도 물라보게 달라져 옛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

요즘 평양을 찾는 해외동포들은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나날이 물라보게 변모된 평양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군 한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흔히 써오는 이 말의 의미를 새삼스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으나 그것은 내가 취재차로 조국을 떠나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였다.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호텔에 듣나는 먼 여행길에 복이 밀려들어 방에 들어서자 물병부터 집들었다. 급하게 물병을 입가로 가져가던 나의 손이 물들 도중에서 굳어졌다. 물병에 씌여진 가격, 난생처음 대하는 『물가격』이 나의 눈길을 얼어붙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는 공짜로 마실수 있는 물이란 한모금도 없답니다.』

안내 하던 해외동포의 설명을 듣고서야 나는 내자신이 조국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와있음을 깨닫고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도착한 첫날부터 조국에서 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체험하던 나는 하루하루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나라에서는 물이자 곧 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날에는 한밤중에 원고를 쓰다가도 물을 마시려고 보면 어느새 다 마셔버렸는지 빈병만 있어 나가 물을 사와야 했고 또 어떤 날에는 목이 마른채로 잠을 자 한적도 있었다. 그 나라에서 물은 곧 돈이었던 것이다. 물을 사먹는데 습관되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위용을 파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꾸밀 용대한 목표밑에 이 땅에서 건설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성국가의 본보기 살림집들이라고 말할수 있는 만수대거리 살림집들과 해방산기슭의 살림집들이 홀륭히 일떠서 새집들이를 한것이 어제같은데 만수대지구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거창한 대건설전투의 장엄한 북소리가 또다시 힘차게 울리고있다. 그 이름도 정다운 인민국장과 백수십m²의 3칸, 4칸, 5칸의 살림방들을 갖춘 현대적인 아파트들과 편의봉사망들...

지금도 사람들은 평양에 웅장화려한 거리들이 눈부신 속도로 일떠서던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1950년대의 천리마대고조시기 평양속도의 창조자들은 한세대조립을 14분만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970년~1980년대 평양변영기의 개척자들도 짧은 기간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평양제1백화점, 인민문화궁전, 빙상관, 창광원, 청류관을 비롯한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세인을 경탄시켰다. 1990년대초 통일거리 건설자들도 한세대조립을 최고 4.9분만에 해제끼는 위험대적인 아파트들과 편의봉사망들...

그 기세, 그 전통을 이어 오늘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에서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전통적인 속담이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에서는 『1년이면 강산도 변한

해제끼는 말로 바뀌었다. 만수대지구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은 착공한 때로부터 불과 몇달도 안되는 사이에 초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조작업을 기본적으로 끌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천세대의 방대한 살림집건설공사가 시작되어 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45층살림집조공사가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 속도를 감작할수 있다.

건설지휘부의 한 일군은 이런 속도로 나가면 다음해 4월까지 새집들이를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다가 현대적미감에 맞게 조형화, 예술화가 구현된 품등어판과 인민아와빙상장, 창광원식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

생시설들이 건설되고 도로의 화단조성과 원림특화, 황홀한 불장식까지 완성되면 평양시면모가 완전히 일신될것이라고 그는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평양시에서는 만수대지구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과 함께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에 대한 개선보수사업도 동시에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에서는 오래된 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성과를 내고있다. 그 어릴 가나 지난 시기의 건물들에 불였던 낡은 타일들을 깨내고 새타일을 붙이거나 산뜻한 외

장재를 바르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건물을 둘러막았던 낡은 울타리를 없애거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갖가지 장식까지 해놓으니 거리가 확 트이고 한결 산뜻하고 깨끗해져 정신이 번쩍 든다고 보는 사람들마다 좋아하고있다.

평양시를 나무숲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한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루어져 있다.

대성구역을 비롯한 많은 구역들에서 자기 구역의 특성에 맞게 원림특화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금성거리입구로부터 강동으로 향하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리와 공원, 유원지들이 수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본사기자 흥법식

의 몸에서 물을 10% 잃으면 피가 걸어져 쇼크증상을 일으키며 20%만 잃으면 생명활동이 정지된다고 한다.

이렇듯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물을 조국에서의 생활, 가는 곳마다 정제된 깨끗한 수도물이 팔팔 쏟아져나오고 돈 한푼 내지 않고 어디서나 마음껏 물을 마실수 있는 우리 조국이 그리워졌다.

지금껏 물이라면 흔한 것으로 생각해왔던 나였다. 이 땅 어디 가나 흐르고 또 흐르는 물이라고.

문득 언제인가 어느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글이 생각났다.

『물자원의 부족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물소비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물의 소비속도가 재생속도를 통과하고 있다.』

자원부족으로 물값은 날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세계가 심각한 물문제로 물미리를 끊고 있지만 조국인 민은 물부족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는가.

결코 자연의 혜택이라고만 볼수 없다. 조국에서는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나 수도물이 나오고 천지개벽한 농장벌들을 적시며 관개용수를 흐르고 있다.

면 파거에도 이 땅에는 강이 흘렀고 물이 있었다. 그러나 인민이 그 강, 그 물

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감동깊은 현실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보건부문에서 경막외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무통해산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가르침을 주고 무통해산효과를 이전시기보다 훨씬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었다.

각 도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강습과 실습이 조직되었다.

결과 지난 7월부터 경막외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무통해산법이 전국의 시, 군(구역)인민병원들에 도입되어 기 시작하였다.

무통해산법에 의한 선진의료봉사는 값비싼 의료설비들과의 약품을 필요로 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불 때 부유한 계층의 녀성들만이 받을수 있는 의료봉사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전국의 모든 산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된것은 사람의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

군들에 대한 강습과 실습이

수필 물 한모금을 놓고

그래서 물을 아깝지 않게 써왔다. 흔한 물이라고 하여, 꼭지를 틀면 팔팔 쏟아지는 수도물이라고 하여 물탕크가 넘쳐나도 흔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렇게 흔한 조국의 수도물이, 거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봉사되는 강수약수며 통약산샘, 신덕샘물을 마음껏 마시던 평범한 나날들이 해외취재길에서 이렇게 가슴에 새겨질줄은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물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다. 『물처럼 흘러나온다.』는 말이 『물처럼 귀하다.』로 되었고 『물이자 곧 돈이다.』로 되었다.

사람몸질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공기와 함께 인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사람

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감동깊은 현실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보건부문에서 경막외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무통해산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가르침을 주고 무통해산효과를 이전시기보다 훨씬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었다.

각 도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강습과 실습이 조직되었다.

결과 지난 7월부터 경막외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무통해산법이 전국의 시, 군(구역)인민병원들에 도입되어 기 시작하였다.

울해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 그리고 모든 시, 군(구역)인민병원들에서 1만 8천여명의 산부들이 아무런 진통도 없이 새 생명을 받아야 되었다.

전국의 산파부문 의료원들에 대한 강습과 실습이

의 참된 주인이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가. 지난날 나라잃어 제 나라 물마저 빼앗겨야 했던 우리 인민이었다.

물에 서린 인민의 원한을 영원히 가셔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해방후 제일먼저 관개의 첫삽을 뜨신분도, 깊은 물짜기를 해치시며 저수지터전을 잡아주시고 압록강물을 오수더의 수백m²산정에 까지 이어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조국의 물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사계절 맑은 물 출렁이는 청량원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개천-태성호물길도 그 은정 뜨겁게 노래한다. 최근 조국에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고 깨끗한 먹는물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남포-평양반도수송관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모금의 물을 놓고서도 안개에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이를다운 그 경치 그냥 지나칠수 없어 평양과 원산, 금강산을 오가는 국내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도 의해 이곳에 찾고 있다.

이곳 신평휴게소에서는

동포들이 즐겨찾는 신평휴게소

이곳에 휴게소가 자리잡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여년 전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몸소 이곳에 찾아오시여 휴게소위치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주변풍치를 더 아름답게 꾸리고 관리운영사업을 잘 할때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휴게소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잠간 들려도 조국의 향취를 한껏 안고갈수 있도록 친절히 봉사하고 있다.』고 리두재 신평휴게소의 지배인은 말하였다.

신평휴게소에서는 건물안팎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알뜰하게 꾸리는 한편 봉사의 질을 높여 밤낮없이 찾아드는 동포들을 친절하게 맞고 보내고 있다.

또한 신평지구에서 나는 산나물과 약초들인 버섯, 도

라지, 꼼취 등을 봉사해줌으로써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잠간이지만 인상에 남는 곳』, 『조국인민들의 친절하고 순박한 마음씨에 감복했다.』, 『오늘 떠나고싶지 않는 곳』, 이것이 신평휴게소를 찾는 해외동포들의 꾸밈없는 토로이다.

최근에는 신평휴게소지구에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우는 신평금강명승지가 새로 훌륭히 꾸려져 이곳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의 발길이 더욱 찾아지고있다.

또한 신평지구에서 나는 산나물과 약초들인 버섯, 도

라지, 꼼취 등을 봉사해줌으로써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 이곳은 경제건설의 첨단으로, 국립연극극장과 비롯한 인민문화전당들이 새로 건축되거나 개진되고 통라도유원지가 새로 꾸려지고 있으며 동평양에는 종합봉사시설과 인민아와빙상장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이제는 경제건설의 초기단계에서 주체적 협동으로 국립연극극장과 비롯한 인민문화전당들이 새로 건축되거나 개진되고 통라도유원지가 새로 꾸려지고 있으며 동평양에는 종합봉사시설과 인민아와빙상장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이제는 경제건설의 초기단계에서 주체적 협동으로 국립연극극장과 비롯한 인민문화전당들이 새로 건축되거나 개진되고 통라도유원지가 새로 꾸려지고 있으며 동평양에는 종합봉사시설과 인민아와빙상장이 건설되고 있다.

정교수는 계속하여 북방의 대야금기지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성산체계를 모두 CNC화했다고 전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도 기술개선에 혁신이 일어났고 황철의 대야금기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중

량제로 돌아오기 위하여 정교수란분이 최근 8년간 전국적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새로 건설되거나 개진되고 통라도유원지가 새로 꾸려지고 있으며 동평양에는 종합봉사시설과 인민아와빙상장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이제는 경제건설의 초기단계에서 주체적 협동으로 국립연극극장과 비롯한 인민문화전당들이 새로 건축되거나 개진되고 통라도유원지가 새로 꾸려지고 있으며 동평양에는 종합봉사시설과 인민아와빙상장이 건설되고 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평양호텔에서 순안비행장으로 나가는데 도로옆 여기저기에 최신식 낭세온실과 화초원들이 많이 눈에 띄웠다. 어서 속히 이북인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명명거리며 잘 살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나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재미자주사연구소 소장 김현환

이북은 사회주의건설의 거대한 용광로 (2)

늘어나는 인민생활기지

우리 일행은 회천발전소 건설장을 돌아본 후 평양으로 향하였다. 농촌마을에 새로 건설되거나 개진된 살림집들이 보기 좋았다. 회천발전소로 안내한 일군은 이제 머지않아 우리 나라가 제일 잘사는 나라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전에 백두산의 삼지연에 지은 집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회천발전소를 오며 보니 이북전체가 그처럼 아름답게 꾸려지고 있다.

평양으로 내려와 밤 9시경에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을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건설지휘부의 한 일군이 우리를 안내하였다. 높이 솟아오르는 초고층살림집건설장에서 용접불꽃이 쏟아져내리고 기증기, 혼합기 등의 건설기계들이 우렁찬 소리를 내고 있어 옆에서 하는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건설장으로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파수원안을 한참 차를 타고 달리다가 현대적인 큰 건물앞에서 내렸다. 여기가 파수원에서 생산된 사파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가능하는 대동강파일종합가공장이라고 했다.

안에 들어서니 건물복도의

양쪽으로 여러방들이 있었고 그 방들에 현대적인 기계들이 줄비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여기서 여러 종류의 식료품들이 생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넣은 DVD를 주십시오.

《아동영화 <소년장수>와 <령리한 너구리>》도 있나요? ... 한 중년부인이 예술영화를 담은 매체를 부탁하는데 역시 동심에 잠긴 아이들은 아동영화를 담은 매체를 저마끔 요구한다. 이때 지성미가 넘치는 나이지숙한 남자에게 판매원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을 수록한 DVD를 주문하는 것이였다.

생활의 청춘한 웹툰무료

* * * 목란비데오 상점에서 *

《목란비데오매체를 사려 오는 손님들로 우린 늘 바쁘답니다. 저마다 좋은 것, 새로운 운정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수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목란비데오상점의 지배인

인 리경희녀성은 자기 일에

대한 궁지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목란비데오에서 제작한

문화매체들은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지에 정연하게 꾸려진 보금당을 통해 보급된다. 목란비데오상점은 그중 제일 큰 문화매체상점이라고 할수 있다.

해빛밝은 상점안에는 수천 장이 넘는 CD, DVD매체들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전

울에 저 장해놓고 이를봄까지 먹는 김장김치이다.

남새가운데서 무우는 남성을 의미하고 배추는 너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옛날 북쪽 사람들이 주로 무우로 간을

적게 하여 총각김치를 담그어먹었다면 남쪽 사람들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배추를 가지고 짜게 절구어 김치를 만들며 먹었다. 이것이 사람들

의 성격에도 반영되어 북쪽 사람들은 남성적기질을, 남쪽 사람들은 여성적기질을 더라고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당시의 총각김치

는 현재와 같이

여러가지 양념

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

동치미와

비슷하게

소금물을

많이 부어

담근것이

었다. 총각김치

도 기본은 추운

감자찌개를 걸고 살았다.

하루는 두 고장 사람으로 만나 상대방의 흥질을 하였다.

호남사람: 《듣자니 임자

네 고장 사람들은 감이 익을 때면 첫물을 따서 조상에게 드리고 싶지만 아까워서 차차 따지는 못하고 조상의 신주(죽은 조상의 이름을 쓴 폐쪽)를 감나무에 걸어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군. 이웃동네의 깊은곳들이 새벽에 그걸 보고는 비둘기인 줄 알고 활로 쏘이 신주가 유통 박살이 난다니 그게 정말인가?》

남양사람: 《그건 자네가 우정 허튼 소리를 지어내서

다음날 병원사정이 허락치

않아 우리의 계획은 실현되

지 못하였다.

그다음엔 내가 일하는 기업소의 사정이 허락치 않

았다.

우리가 영화구경을 간것

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서

였다.

날씨는 얼마나 상쾌하고 따뜻한지 하늘도 우리의 그 걸음을 축복해주는듯싶었다.

아직 여기저기 폭탄구멍이

들이 눈에 띄고 전쟁의 피해

가 체 가서지지 않았으나 깊은 심장들은 아름다운 랑만에 취하고 싶어 하였으나 우리의 그 걸음에 훨씬 더 큰 기대가 담겨져 있었다.

영화관으로 가는 길옆에

건설장이 있었는데 그날은 휴식일이라 조용하였다.

우리가 그렸을 지날 때

였다. 서너명의 작은 애들이 모여서 있는 가운데에서

여인의 울음섞인 울부짖음

이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짚어하게 하였다.

우리는 급히 그리로 다가

갔다. 애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웬 짙은 너인이 실

신한 사내애를 부둥켜 안고

어쩔줄을 몰라하고 있었다.

나는 최스리워하는 은숙에

게 웃어보이며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나는 은숙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더구나 소아과의사로서

부상당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을 것이다. 또

피투성이된 어린애의 정상을 보았을 때 남쪽에 두

고온 아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

운하고 쓸쓸했다. 내가 발기하고 그처럼 벼르었던 영화구경이 맹랑하게 류산되고보니 내가 은숙에게 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결국 그런 운명을 지닌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아지는것이었다. 그 예감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 영화

구경이 아니라 병원구경을

하게 되었다. 아직 불비한것

이 많은 병원, 밖은 2층건물

에 자리 잡은 병원이었다.

은숙은 나에게 미안해 어

쩔줄을 몰라하였다.

나는 최스리워하는 은숙에

게 웃어보이며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나는 은숙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더구나 소아과의사로서

부상당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을 것이다. 또

피투성이된 어린애의

정상을 보았을 때 남쪽에 두

고온 아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

운하고 쓸쓸했다. 내가 발기하고 그처럼 벼르었던 영화

구경이 맹랑하게 류산되고보니 내가 은숙에게 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결국 그런

운명을 지닌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아지는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 영화

구경이 아니라 병원구경을

하게 되었다. 아직 불비한것

이 많은 병원, 밖은 2층건물

에 자리 잡은 병원이었다.

은숙은 나에게 미안해 어

쩔줄을 몰라하였다.

나는 최스리워하는 은숙에

게 웃어보이며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나는 은숙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더구나 소아과의사로서

부상당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을 것이다. 또

피투성이된 어린애의

정상을 보았을 때 남쪽에 두

고온 아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

운하고 쓸쓸했다. 내가 발기하고 그처럼 벼르었던 영화

구경이 맹랑하게 류산되고보니 내가 은숙에게 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결국 그런

운명을 지닌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아지는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 영화

구경이 아니라 병원구경을

하게 되었다. 아직 불비한것

이 많은 병원, 밖은 2층건물

에 자리 잡은 병원이었다.

은숙은 나에게 미안해 어

쩔줄을 몰라하였다.

나는 최스리워하는 은숙에

게 웃어보이며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나는 은숙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더구나 소아과의사로서

부상당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을 것이다. 또

피투성이된 어린애의

정상을 보았을 때 남쪽에 두

고온 아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

운하고 쓸쓸했다. 내가 발기하고 그처럼 벼르었던 영화

구경이 맹랑하게 류산되고보니 내가 은숙에게 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결국 그런

운명을 지닌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아지는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 영화

구경이 아니라 병원구경을

하게 되었다. 아직 불비한것

이 많은 병원, 밖은 2층건물

에 자리 잡은 병원이었다.

은숙은 나에게 미안해 어

쩔줄을 몰라하였다.

나는 최스리워하는 은숙에

게 웃어보이며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나는 은숙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더구나 소아과의사로서

부상당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을 것이다. 또

피투성이된 어린애의